

행복을 꿈꾸는 당산길 '부안문화재야행'

20~21일 당산문화재 중심 전시·공연·체험 등 29개 프로그램 다채롭게 운영

부안문화재야행(이하 부안야행)이 지난해 부안군과 (사)오래된미래연구소가 기획하여 문화재청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가 두 번째 문화행사이다. 행사기간은 20일부터 21일까지(오후 6시~11시)이며 군청과 동문안·남문안·서문안 당산 일원에서 개최한다.

'행복을 꿈꾸는 당산길' 부안야행은 야간문화를 향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안읍에 밀집된 당산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시·공연·체험으로 총 2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부안문화재야행 포스터

기퍼레이드행렬단 입장, 개막선언식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행사와 8야 체험프로그램을 모두 참여해

'부안문화재야행 완수! 광광!' 도장찍기를 완성하면 다양한 기념품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부안 팔죽 나누기, 오리 가족 그리기, 고려자 만들기, 도자기에 부안음성 그리기, 전통 한옥 짓기, 옛 놀이 체험, 부안이야기 등은 가족이 부담 없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안야행 순환버스도 운행한다고 전하며 코스와 시간표는 읍·면사무소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야행 행사기간 동안 동문안2길, 노후재길, 남문안길, 군청길, 당산로, 서문로 일부 구간 차량을 통제할 예정으로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2회 부안문화재야행은 부안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재의 진정성을 담으면서도 현대화하여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든 군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라며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부안의 문화재를 즐겁게 체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쉽게 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주최한 제17회 정읍 전국실버영화제가 전북영상협회와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미디어과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18일 오후 2시 연지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8회 정읍전국실버영화제 개최

부안산 출품한 김길수 감독 '시간의 그늘' 최우수상 수상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주최한 제17회 정읍 전국실버영화제가 전북영상협회(회장 현철주)와 전북과학대학교(총장 이영준) 방송연예미디어과(학과장 신대호)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18일 오후 2시 연지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상식은 배우 김잔디의 사회로 가수 황금석, 박현정, 배문너, 난타(김은정, 양차숙 외)의 흥겨운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이만세 추진위원장의 내빈소개에 이어서 영화제 발전에 공로가 큰 조석우, 정명성, 김백종 씨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이번 영화제는 본선진출팀 16팀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최우수작(상금 100만원) 1편, 우수작(상금 50만원) 2편, 심

사위원 특별상 (상금 30만원) 3편, 장려상 (상금 20만원) 10편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이 상영되었다.

나아리 심사위원장, 임병수, 조갑남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6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으며, 부안의 실버동호인 김길수 감독의 '시간의 그늘'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으로는 서울에서 출품한 신명성 감독의 '꿈나팔', 광주 영삼미디어클럽에서 출품한 임준형 감독의 '엄마의 전화'가 수상했다. 심사위원특별상은 공성은 감독의 '춤바람', 김효경 감독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달금 감독의 '소년들의 기도'가 수상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문화포럼나니레, '설공찬전' 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선정... 오늘 창작 음악극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서 운영하는 2023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포럼나니레(대표 이희정)가 20일 오후 2시30분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설공찬전' 창작 음악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창작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작품 작품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설공찬전'은 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누이를 따라 죽은 설공찬이 저승사자들의 도움으로 저승에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사촌동생 공침에게 빙의해 이승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다. 설공찬이 경험했던 저승은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이승의 덕과 능력만 출중하다면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이다.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불 태워라, 공

찬의 노래, 태평성대, 새날이 오리라' 등 다수 곡을 창작했으며 노랫말은 최대한 쉽게 표현하여 극의 이해를 더하고자 했다. 주요 운영진에는 예술감독에 이희정 대표, 연출에 권지인 감독, 기획에 권민환 단장, 음악에 이지연 감독 등이 참여한다.

이희정 대표는 "문화포럼나니레는 그동안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문화의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이번 '설공찬전'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재미와 감동에 중점을 둔 공연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만 6세 이상 관람가로 도민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극악원 '다담' 뮤지컬 배우 최정원 출연

국립민속극악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립민속극악원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한국뮤지컬 최고의 디바로 불리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씨가 출연해 '뮤지컬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에서는 1989년 △아가씨와 건달들로

데뷔해 '1세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대표작품 △맘마미아 △시카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지킬 앤 하이드 등 대형 뮤지컬 무대에서 주연과 조연을 맡아온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겪은 후일담 준비된다. 올해로 데뷔 34년차를 맞이한 그녀는 현재 △맘마미아 △델피니 등 많은 작품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무대를 압도하는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우리음악 즐기기는 소울이 출연해 가요, 해금,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연주로 다양한 창작곡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극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지식살롱 14회차 장동련 교수 강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전북지식살롱' 14회차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디자인 총괄 자문위원으로서 엠블럼, 마스코트 등 디자인 개발에 기여한 장동련 교수가 '2023 장소 미디어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장동련 교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로고 디자인 시, 한글을 독특한 눈송이 모양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국제 행사 디자인 부문에서 성공 브랜딩을 보여줬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를 확장된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형 이모티콘으로 제작해 200만 명에게 배포했다.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관련 상품을 판매해 스포츠 이벤트로는 최초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실행한 바 있다. 또한 아시아인 최초로 디자인계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불리는 국제그래픽디자인협회(ICOGRADA) 회장, 국가 브랜드 개발 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인터브랜드 한국지사 초대사장을 비롯해 대기업 및 정부기관들의 다양한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문화디자인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3 전주미래도시포럼'의 좌장을 맡아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청년·귀농인의 시작과 이농·은퇴농의 끝을 이어주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여 이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사업 대상자

- 이농·전업,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예정) 하고자 하는 농업인
- 상속농지소유자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농지연금 가입자 중 담보농지를 매도하려는 자
- 96.1.1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5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한 자

매입대상농지

- (용도) 농업진흥지역 안, 밖(경지정리)
- (지목)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매입가격

일반 농지 |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매입상한가격 적용)

처분명령농지 | 개별공시지가 (단,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으면 실거래가 적용)

농지임대지원조건

지원대상 청년후계농(만18~39세 지자체 선정) | 2030세대(만18~39세) | 후계농업인(만18~49세 지자체 선정) | 일반농업인(만18~64세 이하)

농지임대기간 5년(만 55세 이하의 자가 농업용시설에 타작물 재배시 10년, 임차기간 단위로 재입차 가능)

임차료 해당지역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협의하여 결정 ※ 타작물 재배의무(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시 임대료 80% 감면)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